

삼위일체와 기독교 이단 아리우스주의는 무엇인가?



Arius(256-336)

아리우스주의(Arianism)의는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Arius, 256-336)의 비 성경적인 이단적 기독교론을 말한다. 이 이론은 325년 제1차 니케아 회의에서 또한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죄되었다. 아리우스의 이단적 주장으로 인한 논쟁은 반세기 이상 전 로마 제국을 흔들었으며 더욱 나쁜 것은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아리우스의 견해는 얼마 안 되는 그의 저작의 단편들과 그의 반대자들의 저서들을 통하여 재구성될 수 있을 뿐이다. 그의 논증을 요약해 보면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태어나지 않으시고, 영원한 통일체(Monad)이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통일체에서 나온 종속적이고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아들 혹은 로고스의 이 열등함과 종속성은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아리안주의의 공식으로 잘 표현될 수 있다.

아리우스는 아들을 다른 피조물과 같은 무상한 한 피조물로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본질적으로 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독생하신 아들' 로고스는 완전히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히 피조물도 아닌 일종의 중간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반(半) 아리안주의자는 이 이론은 구원을 반신(半神) 반(半) 피조물에게로 돌린다고 믿었다.

제국의 안정을 바라던 로마제국의 황제 콘스탄틴(Flavius Valerius Aurelius Constantinus, 272-337)은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바라는 325년 니케아에서 당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대단히 긴 그리고 때로는 다툼을 동반한 토론 끝에 다수가 동의하는 '니케아신경'(Nicene Creed)이 작성되었다. 즉 니케아 공의회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본질 동일실체'(homoousios, 호모우시오스)를 가지신 분이시며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판결했다.



Athanasius(296-372)
(anathema)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출교되었고 황제에 의하여 추방당했다.

그러나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본질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본질'(homoousios, 호모우시오스)이라는 말을 아리우스와 두 동료 등 다섯 명은 이 니케아 신경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신경에는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거나 "영원하신 아들은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anathema)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출교되었고 황제에 의하여 추방당했다.

그럼에도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끈임 없는 정치적 종교적 술수와 모함 등으로 몇 년 후 아리우스주의(Arianism)자들이 다시 득세하였다. 그리하여 336년에 이르러 아리우스는 교회와 교회의 정통적인 지도자들과 친교를 회복하여 아리우스의 적수였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추방당했다. 아리우스주의(Arianism)자들은 그들의 기독교론을 다음의 세 가지로 발전시켰다.

- ▶ 아노모이안(Anomoean) : 비(非) 유사(類似)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온 말로서 아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주장
- ▶ 호모이안(Homoean) : 유사(類似)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온 말로서 아들이 아버지와 유사(類似, 비슷한)하다는 주장
- ▶ 호모이우시안(Homoiouian) : 본질(本質) 또는 본체(本體) 있어서 같다는 뜻으로 아들이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지만 존재에 있어서는 같지 않고 아버지에게 종속되었다는 주장

아리우스주의 자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죽은 후 추방되었던 아타나시우스는 다시 복귀하였다. 그리고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유사본질(Homoiouian)을 주장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추방하고 동일본질(Homoousion)을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325년 작성한 '니케아신경'(Nicene Creed)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아리우스주의(Arianism)는 역사적 상황에서 생겨난 다른 여러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독생하신 아들 로고스를 성부에 종속시키는 기독교론이며 3세기 말기에 나타나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교 이단 중 하나이다. (*) 글쓴 이 / 정은표 목사